

# 기획부터 생산까지 청년 창업에 '팔 걷어'

### 전북도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창업Lab 3기수 24개팀 선발·지원 등

전북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청년들의 식품기업 창업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학생·청년 등 식품기업 창업희망자에게 제품기획부터 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멘토링, 제품 생산까지 제공하여 성공적인 식품기업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식품창업Lab 3기수 24개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올해 1기를 2월까지 모집 중

으로, 오픈키친, 소형플랜트 등을 사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는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은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식품벤처센터는 49개실 중 44개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은 3대 R&D센터(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상품과 기술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식품창업Lab이나 식품벤처기업 입주기업들에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시제품 생산 및 공정표준화테스트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3대 R&D센터와 연계하여 제품 연구개발에서 생산, 제형별 완제품 포장까지 맞춤형 One-Stop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32개팀 228건의 시제품 생산을 지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들의 식품창업에 활성화 시키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창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창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식품창업에 대한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농식품창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을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수요가 많은 제2의 벤처센터가 구축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도유림에서 고로쇠 수액채취로 산촌 주민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 신비의 약수 고로쇠 수액 본격 시작

### 도유림서 고로쇠 수액채취로 산촌 주민 소득 향상 기대

도유림에서 고로쇠 수액채취로 산촌 주민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농한기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청정지역인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8개 마을 도유림 8ha(2만4천평)에서 웰빙 건강음료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도유림 내 고로쇠 수액채취는 해당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산촌마을 주민의 신청을 받아 매년 2월 초부터 3월말까지 수액의 채취를 허가하고 있으며, 도유림내 고로쇠 생산은 2,200여본의 나무에서 수액 29,000L 채취로 6천여만원의 판매 수익이 예상되어 농가당 3~4백만원 정도의 농한기 산촌소득이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아직까지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이어져 많은 양이 채취되지 않지만 날씨가 풀리는 정월대보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채취를 하게 된다.

특히, 도유림 대부분은 고원지대 청정지역인 산간오지로 고로쇠에 칼슘과 마그네슘 등 무기물과 당분이 풍부하고 품질이 높아 전국적으로 선호 하고 있다.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 양정기 소장은 "도유림을 활용한 고로쇠 채취가 지역 산촌마을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는 도유림의 불법훼손 방지와 산불예방 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리관 교육·시연회 가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투표관리관의 투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191명을 대상으로 2월 8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및 투표관리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투표관리관은 조합직임으로 구성되었으며,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전북선관위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이용한 조합장선거의 투표관리 방법과 절차,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투표관리관들은 실제 사용할 투표 운영장비를 시연해 봄으로써 투표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오는 3월 13일 전북지역에서는 10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김진성 기자



제100주년 2.8독립선언 기념식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각) 일본 도쿄 재일본한국 YMCA에서 열린 제100주년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해 주요내빈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북 정신 바로 세운다

### 전북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역사인식에 대한 정체성 확보

전북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전문가 토론회가 8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전북의 3.1운동을 비롯해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계, 연구기관, 보훈처, 광복회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각 시군, 보훈청, 광복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들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정부 추진위원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100주년을 통해 전북의 역사인식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 독립유공자 발굴 선양, 재현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1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을 연계한 역사적 가치를 부각하여 전라북도의 특색을 살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자체 공동 추진사업으로 기

념사업 정부인증 지원, 국민소송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 독립유공자와 후손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도 자체 추진사업은 범부처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제출한 바 있는 3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월 말까지는 전북연구원 주관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도립국악원 주관 100주년 기념 특별공연, 광복회전 북지부 주관 독립영웅 창작 판소리 발표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주관 3.1운동 재현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관심과 공감을 확산시키고, 3~4월에는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도 주관으로 100주년 3.1절 기념식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관으로 3.1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 특별전시를 연중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연관성 특별좌담도 운영한다. 5월 이후에는 전북지역 3.1운동 자료 발굴과 정리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현승 차재행정국장은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우량한 콩·팥 생산, 정부 보급종 신청부터

### 대원콩·선풍콩 등 4품종 158.6톤...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박원태)은 2018년산 콩·팥 보급종에 대하여 2019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북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4품종 158.6톤으로 대원콩 97톤, 선풍콩 43톤, 풍산나물콩 18톤, 아라리팥 0.6톤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보급종 신청 시 품종자는 소독과 미소독을 구분하고 팥 종자는 미소독으로만 신청접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청한 종자는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

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급종에 신청하는 농민들은 전북지원에서 처음 공급하는 신규품종으로 종자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품종특성과 재배상 유의점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보급종 품종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 포털'의 품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문의 사항은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또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임실군 공고 제 2019-107호

##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면적(m <sup>2</sup> )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계	27,276	-	27,276	27,276	100.0	
비도시지역	-	중)27,276	27,276	27,276	100.0	
농림지역	27,276	합)27,276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468번지 일원	농림지역 변경	27,276	100(%) 이하	관촌면민의 생활체육공간을 통한 건강·행복권을 보장하고자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실용생략
-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서 : 실용생략
- 열람(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의견제출) 장소
  - 가. 열람장소 : 임실군청 건설과 및 체육청소년과
  - 나.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063-640-2333) 및 체육청소년과(☎063-640-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임 실 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fjmaeil.com